



2012년 9월 27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CHART OF THE WEEK : 유럽 나누기 미국

• 이머징마켓 동향

QE3 무용론과 정책기대 약화로 중국증시 하락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녹십자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KCC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건자재, 미디어광고,
제일기획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9/19(수)	09/20(목)	09/21(금)	09/24(월)	09/25(화)	09/26(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07.88	1,990.33	2,002.37	2,003.44	1,991.41	1,980.44	
	등락폭	2.92	-17.55	12.04	1.07	-12.03	-10.97	
	등락종목	상승(상한)	493(5)	367(11)	463(5)	366(3)	259(8)	278(5)
		하락(하한)	322(4)	463(4)	356(7)	460(8)	571(8)	550(1)
	ADR	113.56	110.49	115.67	113.62	109.55	104.24	
	이격도	10 일	102.55	101.09	101.33	100.98	100.02	99.31
		20 일	103.74	102.71	103.11	102.94	102.12	101.42
	투자심리	70	60	60	70	70	60	
	거래량 (백만 주)	946	613	642	477	524	1,190	
	거래대금 (십억 원)	5,703	5,276	4,904	4,189	4,453	4,730	
코스닥	코스닥지수	528.06	528.06	531.49	532.28	522.96	520.71	
	등락폭	4.54	0.00	3.43	0.79	-9.32	-2.25	
	등락종목	상승(상한)	535(12)	418(10)	479(17)	453(26)	267(9)	359(17)
		하락(하한)	384(7)	519(4)	465(11)	498(18)	689(13)	583(4)
	ADR	109.92	107.55	110.03	113.04	105.82	100.02	
	이격도	10 일	102.10	101.68	101.94	101.70	99.75	99.26
		20 일	103.47	103.18	103.51	103.28	101.24	100.65
	투자심리	80	70	70	70	60	50	
	거래량 (백만 주)	785	784	912	707	920	592	
	거래대금 (십억 원)	2,929	2,965	3,368	3,015	3,166	2,31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652.2	983.0	1,094.0	163.5	144.2	277.9	71.9	28.9	312.8	47.2
	매도	2,512.4	952.5	1,265.1	213.3	181.5	361.6	57.1	48.7	197.5	46.5
	순매수	139.9	30.5	-171.1	-49.8	-37.3	-83.7	14.8	-19.8	115.4	0.7
	09월 누계	-2,245.0	3,128.8	-665.3	-380.2	-110.7	-1,186.7	-73.5	-3.7	823.2	-218.5
	12년 누계	-12,491.3	14,768.8	1,658.0	1,258.8	2,203.1	-4,344.2	-74.5	412.0	1,407.4	-3,935.5
	코스닥	매수	2,136.3	77.7	107.5	14.4	18.6	34.2	5.7	4.0	27.7
매도		2,117.1	81.9	111.7	19.1	16.9	37.5	8.2	5.2	19.3	27.4
순매수		19.2	-4.2	-4.2	-4.7	1.7	-3.3	-2.5	-1.2	8.4	-10.8
09월 누계		21.4	83.9	-69.1	18.9	25.7	-125.2	-38.0	-11.0	59.8	-36.1
12년 누계		979.1	-1.3	-400.0	65.3	82.1	-578.6	-88.9	-53.8	162.7	-577.7

CHART OF THE WEEK : 유럽 나누기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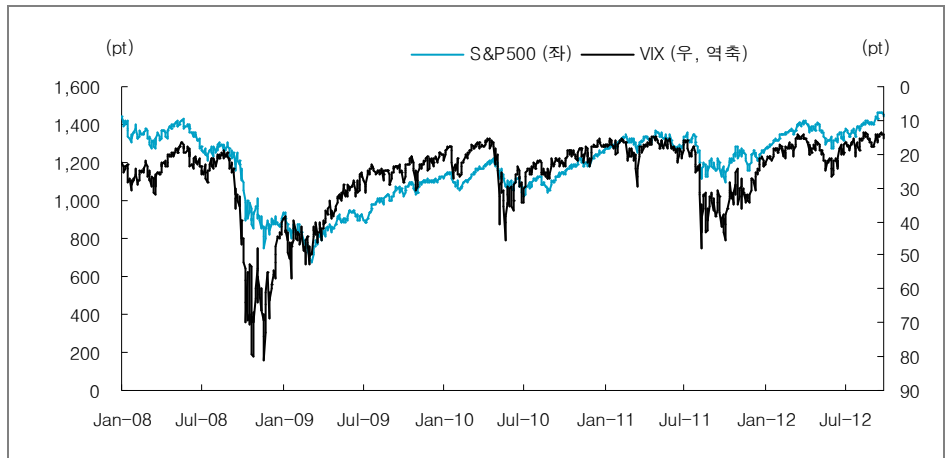
9월 월간 밴드	1,800-1,950pt
2012년 하반기 밴드	1,750-2,100pt
12MF PER	9.3배
12MF PBR	1.07배
Yield Gap	8.0%P

- ▶ QE에 대해 증시가 무릎반사반응(Knee-jerk reaction) 보이기 힘든 이유: 실물세에 대한 불안
- ▶ Chart of the week: 유럽증시와 미국증시 상대강도 (STOXX/S&P500)에 주목
- ▶ STOXX/S&P500이 보여주는 선행성: 유로화 및 코스피 방향성 모색에 의미있는 지표

■ QE 기대감을 상쇄시키는 실물 불안

3차 양적완화 효과가 날개를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주식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멘텀이 급격하게 둔화된 모양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양적완화는 VIX 지수가 역사적 저점에 근접해 있고, S&P 500도 리먼사태 이후 낙폭을 만회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수준보다 높은 증시 레벨이 시장으로 하여금 ‘고소공포증’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양적완화에 대해 무릎반사(Knee-jerk reaction)와 같은 반응을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힘들었을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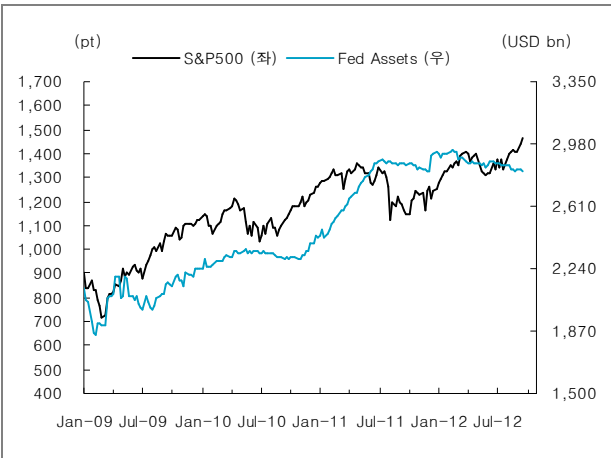
[그림 1] S&P500과 VIX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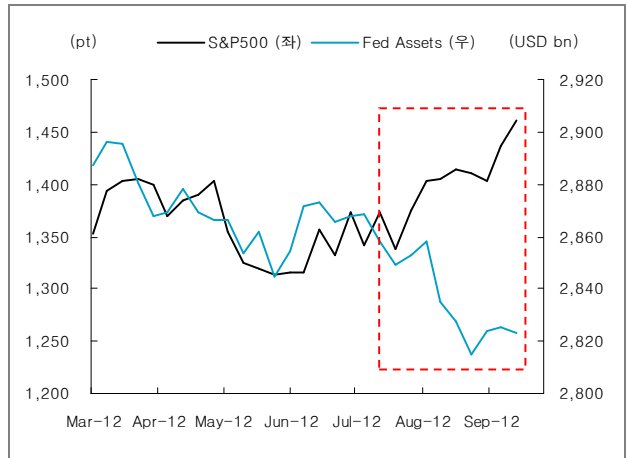
한편 미국 증시가 QE3를 이미 어느정도 선반영했다는 점도 주목해볼 수 있다. [그림 2]는 2009년 이후 연준 자산 규모와 S&P 500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준 자산이 실제로 증가하기 전에 증시가 먼저 반응하는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이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면, QE3의 ‘약속’에 따라 증시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기 힘든 이유는 당장의 실물 경기 우려를 간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림 2] S&P500과 연준 총자산 추이 (09년 1월~현재)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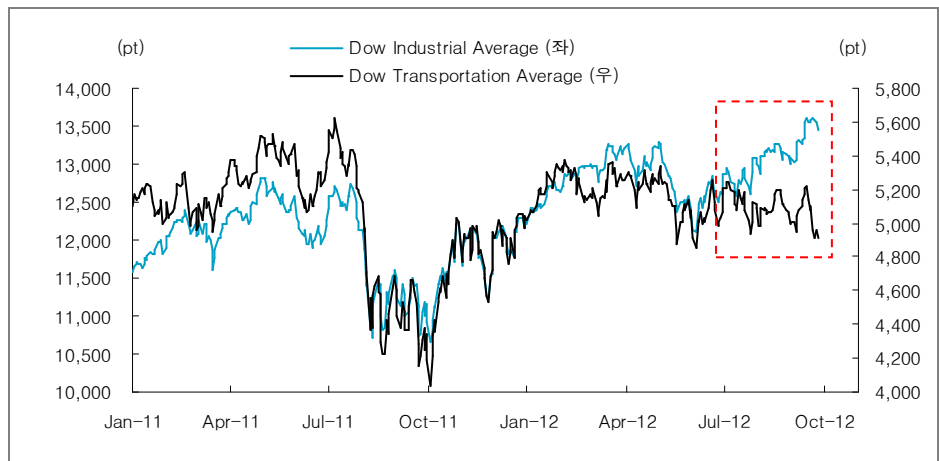
[그림 3] S&P500과 연준 총자산 추이 (11년 3월~현재)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다우이론’에 따르면 다우지수와 다우운송지수가 서로 엇갈린 모습이 나타날 경우, 향후 다우지수의 방향성은 다우운송지수의 그것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두 지수는 올해 7월 이후 크게 엇갈려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불편한 진실도 QE3만으로는 덮기 힘들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 정치 불확실성,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유로존 경기 불안도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그림 4] 다우지수와 다우운송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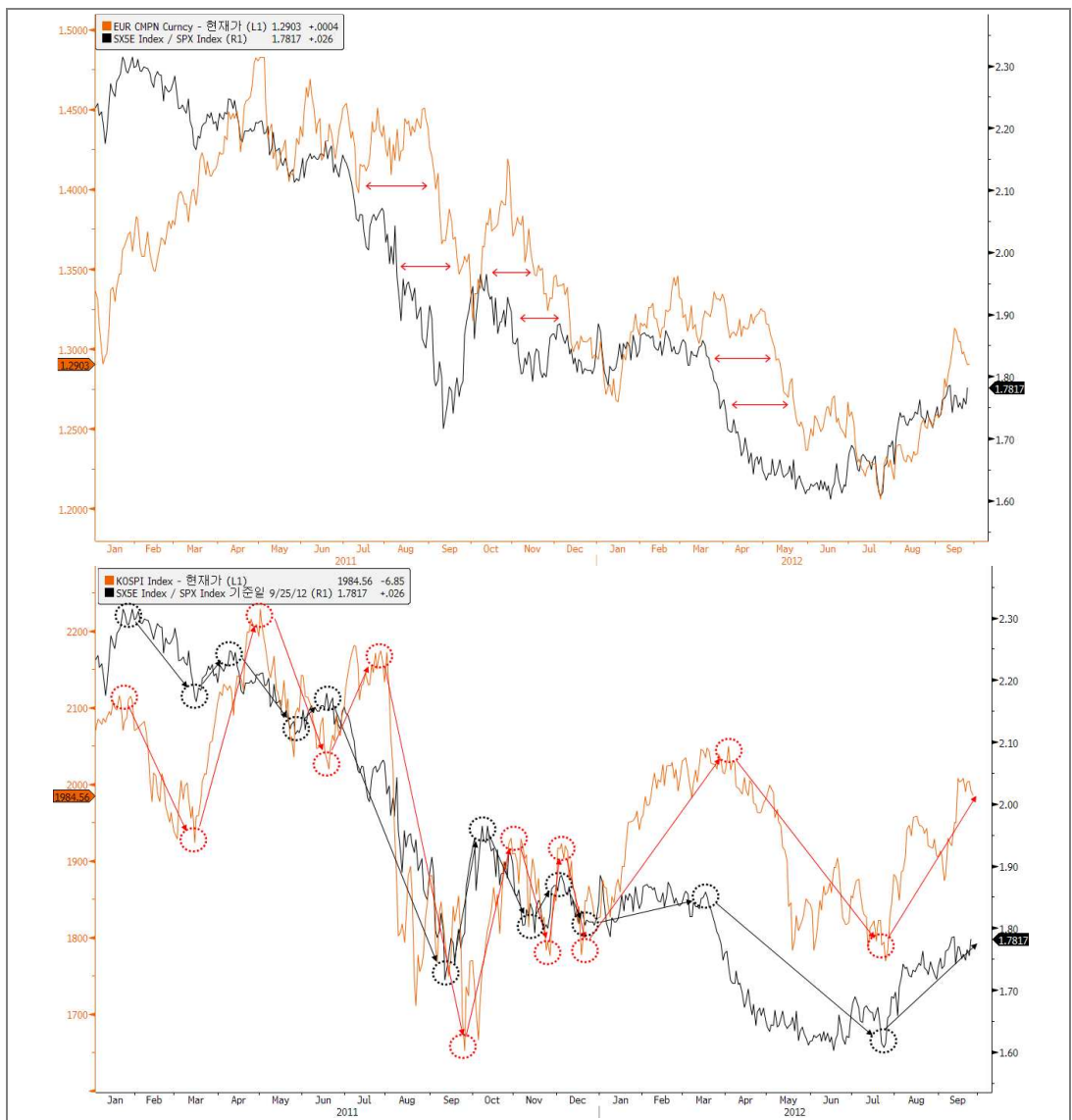
■ 유럽 나누기 미국

드라기로부터 시작된 유로존 정책 담당자들의 시스템 사수 노력과 연준 양적완화로 유로화는 빠르게 반등하며 최근 1.3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실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하며 다시 1.30선 아래로 밀려났다. 미국발 유동성이 달러를 끌어내리는 힘과 유럽발 우려가 유로화를 끌어내리는 힘이 불편한 줄다리기를 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유로화 1.30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가운데 필자는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의 상대강도에 주목하고 있다. Chart of the week로 이 지표를 꼽은 이유는,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을 대표하는 STOXX지수와 미국을 대표하는 S&P500의 상대강도(이하 STOXX/S&P500)가 분명한 선행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행성은 특히 2011년 이후 두드러진다. STOXX/S&P500의 추세고점 및 저점은 유로화의 그것에 약 2개월 가량 선행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STOXX/S&P500은 11년 이후 KOSPI와 비교해봐도 - 유로화만큼 규칙적인 간격은 아니지만 - 꽤나 의미있는 선행성을 보여준다. 양적완화만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는 증시를 논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대강도의 선행성은 향후 유로화 그리고 국내 증시의 방향성 모색하는데 의미있는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5] Chart of the week: STOXX와 S&P500 상대강도에 주목하는 이유: 유로화 및 KOSPI에 선행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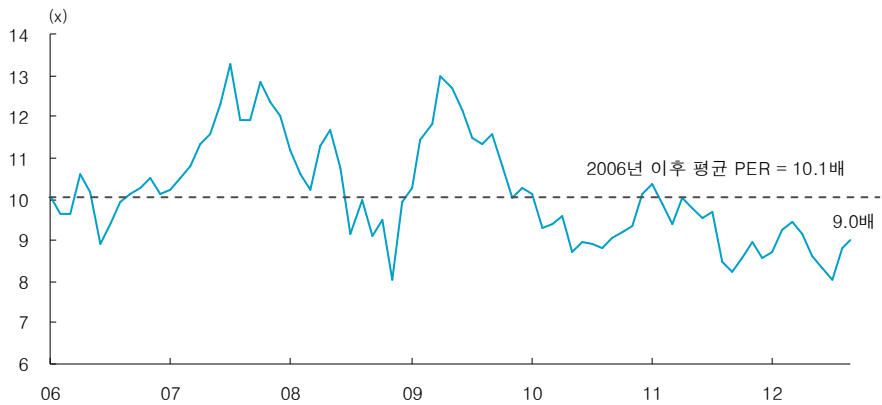
Quant Lab – 중소형주 이익 개선은 추가 상승을 위한 필수 조건

■ 중소형주 이익 개선은 추가 상승을 위한 필수 조건

OMT¹ 프로그램, QE3 등 선진국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로 한국 증시는 2,000p까지 상승했으며, 7월말 8.0배였던 PER은 9.0배까지 상승했다(MSCI Korea 기준). 하지만 수출 감소와 M1, M2 증가율 둔화 등 실물경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기업들의 예상 이익 하향세가 최근 들어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하향 조정 중이다.

이와 같이 주식 시장의 펀더멘탈 개선 신호가 좀처럼 나타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맞이하게 된 2,000p의 지수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p의 높은 yield gap은 채권에 비해 주식의 매력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또한 9월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예상 PER은 9.0배로 2006년 이후 평균 PER 10.1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점은 지수의 추가 상승을 뒷받침 하는 주요 근거가 되기 충분하다[그림1].

[그림1] MSCI Korea 12개월 예상 PE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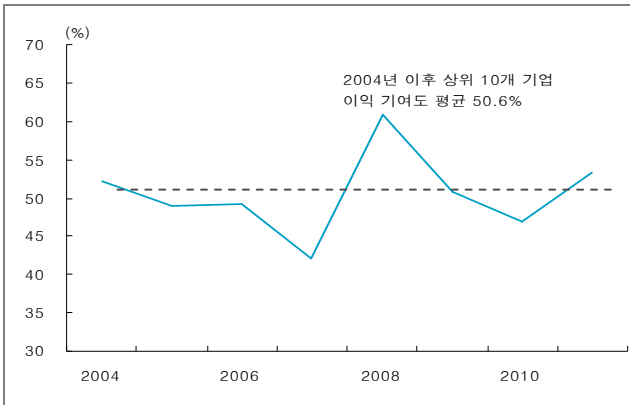


자료: IBES, 한국투자증권

기업들의 예상 이익이 하향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초대형 기업들의 이익 가시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익 둔화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익 상위 10개의 초대형 기업의 이익 기여도는 지난 2012년 2분기 72%까지 상승했다[그림3]. 2004년 이후 상위 10개 기업들의 이익 기여도가 평균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점을 고려하면[그림2], 최근 초대형 기업들의 이익 기여도 상승추세는 이례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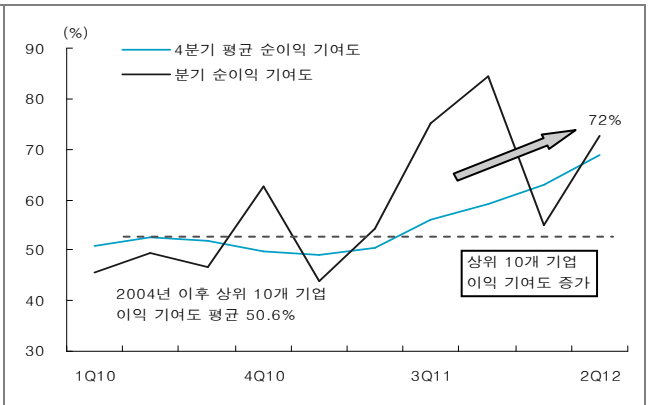
¹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무제한 국제 매입

[그림 2] 한국 시장 순이익 상위 10개 기업의 이익 기여도 추이 (연간)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3] 한국 시장 순이익 상위 10개 기업의 이익 기여도 추이 (분기)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하지만 우리는 초대형 기업에 집중된 이익 집중 현상이 오히려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특정 기업으로의 이익 집중 현상은 한국 시장의 분산 투자 효과를 감소시켜 비체계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할인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낮춘다.

우리는 실제로 20개 국가들의 상위 10개 기업의 시장 전체 순이익 기여도와 요구 수익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5페이지 II. 퀀트 심층 분석 참조), 상위 10개 기업의 순이익 기여도가 10%p 높아질 경우 요구 수익률은 0.2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시장 PER 9배와 kopsi 2,000p를 가정할 경우 110p의 할인 효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현재 시장 전체의 2012년 예상 이익 97조원에서 상위 10개 기업의 순이익 기여도가 과거 평균 수준인 50%에서 유지되고 있었다면 kopsi는 2,110p에서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표1>.

만약 적정 kopsi 산정을 위한 민감도를 세계 평균이 아니라 한국 민감도를 쓸 경우, 이익 기여도 집중 현상에 따른 할인율은 더 높아진다. 한국의 경우 상위 10개 기업 이익 기여도 10%p 상승시 요구 수익률 상승분은 0.73%p로 세계 평균에 비해 2.5배 높다. 이 경우 한국 시장의 적정 kopsi는 2,302p로 추정된다<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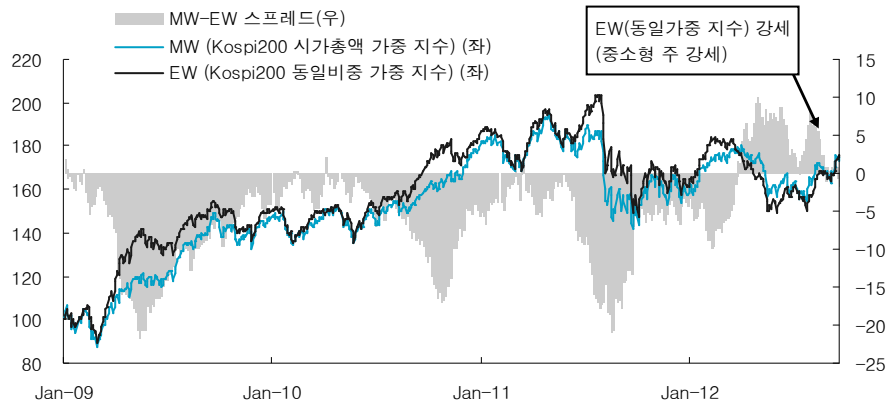
<표 1> 상위 10개 기업 이익 기여도 증가에 따른 할인 효과

민감도 분석 샘플	요구 수익률 상승분 (상위 10개 기업 이익 기여도 10%p 증가 시)	요구 수익률 상승분 (상위 10개 기업 이익 기여도 20%p 증가 시=현재 한국 시장 상황)	적정 PER (현재 PER 9배 가정 시)	적정 kopsi (현재 kopsi=2,000p 가정 시)
세계 평균	0.29%p	0.58%p	9.5	2,110p
한국	0.73%p	1.46%p	10.4	2,302p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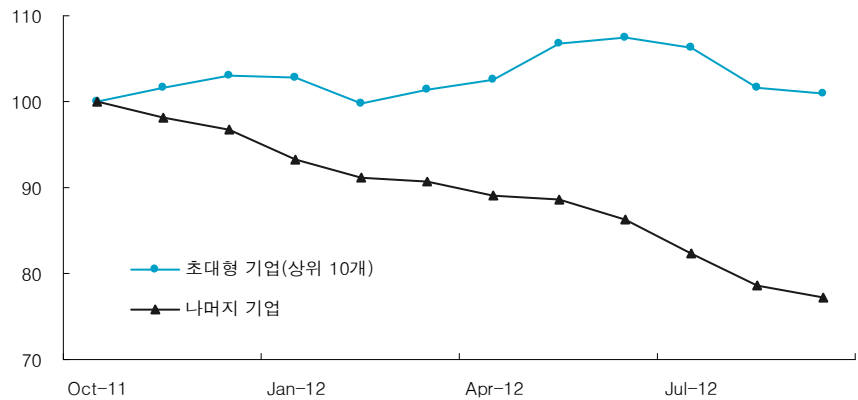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는 중소형주의 이익 회복 없이 초대형주의 이익으로만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중소형주의 이익 회복이 향후 지수의 추가 상승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판단한다. 9월 지수가 상승하면서,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관찰되고 있으나[그림4], 초대형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예상 순이익 하향추세의 바닥을 확인하기 어렵다[그림5]. 따라서 최근의 중소형주 강세는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으며, 밸류에이션의 추가 상승 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박스권 트레이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4] Kosp200 시가총액 가중 지수(MW)와 동일 가중지수(EW) 추세



자료: IBES, 한국투자증권

[그림5] 초대형 기업과 나머지 기업의 2012년 예상 순이익의 변경 추이



주: 2011년 10월 31일 기준 예상 이익=100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10월 long/short 포트폴리오 (요약)

10월 long/short 포트폴리오를 <표2>와 같이 제안한다. Long 포트폴리오에는 SK이 노베이션을 비롯한 21개 종목을, short 포트폴리오에는 금호석유를 포함한 15개 종목을 선정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경기소비재, 금융, IT 종목에서 long 신호가 많이 발생한 반면, 소재, 자본재 업종에서 short 신호가 많이 발생했다.

이 포트폴리오에 제시된 종목은 퀀트 모델에 정성적인 위험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당사의 공식적인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다. 정성적인 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 퀀트 long/short 포트폴리오는 14페이지에 제시되어있다.

계량분석

<표 2> 월간 long/short 포트폴리오

업종	Long portfolio				Short portfolio				
	GICS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수익률 (최근 1개월, %)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수익률 (최근 1개월, %)
에너지		096770	SK이노베이션	15,442	-3.7				
		010950	S-Oil	11,709	-4.1				
		003600	SK	7,350	-7.1				
		078930	GS	6,132	-1.9				
소재		005950	이수화학	356	2.9	011780	금호석유	3,778	4.6
						009830	한화케미칼	3,079	3.1
						001430	세아베스틸	1,379	9.4
자본재		086280	현대글로벌비스	8,775	9.1	009540	현대중공업	19,456	5.3
		047810	한국항공우주	2,476	-3.1	011200	현대상선	3,868	-5.8
						001740	SK네트웍스	2,631	8.9
						000120	CJ대한통운	2,197	4.4
						122900	아이마켓코리아	1,014	9.7
						028670	STX팬오션	891	10.2
						097230	한진중공업	642	-0.7
경기소비재		011210	현대위아	4,760	7.2	090430	아모레퍼시픽	6,910	6.3
		018880	한라공조	2,455	-5.0	079160	CJ CGV	617	4.4
		007070	GS리테일	2,152	-3.6				
		093050	LG패션	877	-6.5				
		009970	영원무역홀딩스	839	2.5				
		031430	신세계인터넷내셔널	600	5.0				
필수소비재									
의료					000640	동아제약	1,130	2.5	
금융		001450	현대해상	2,950	4.8	006800	대우증권	4,263	13.0
		002550	LIG손해보험	1,473	7.2				
		000060	메리츠화재	1,247	3.6				
IT		066570	LG전자	12,077	7.0				
		012450	삼성테크윈	3,507	-7.0				
		121440	골프존	645	-6.6				
		008060	대덕전자	515	3.4				
		020760	일진디스플레이	495	17.7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015760	한국전력	16,755	2.4	

*상기 보고서는 2012년 9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QE3 무용론과 정책기대 약화로 중국증시 하락

- ▶ 중국 인민은행, QE3 출범 배경하에 신중한 통화정책 유지 입장 표명
- ▶ 중국, 3분기 이후 국가발개위 승인 획득 투자 규모 5조 위안 초과 -중증망
- ▶ 홍콩, 8월 수출 및 수입증가율 각각 0.6%와 0.9%로 모두 플러스 전환, 무역적자 축소

■ 중국 시장

상해지수 장중 2,000pt 하회.
전 업종 하락. 비철, 기계,
전자, 화학 등 큰 폭 내려

상해종합지수가 또 다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전 소폭의 하락세를 유지했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했고 마감 직전 일시적으로 2,000pt를 하회했다. 거래금액은 384억 위안으로 축소됐다. 미국의 QE3 시행을 두고 실효성 논란과 중국 통화정책 여력 제한, 위안화 절상 압력 확대 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 역RP 발행 확대로 지준율 인하 기대가 낮아졌고 연후를 앞두고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매도세가 확대됐다. 또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의 IPO 승인 재개 소식과 4분기 보호예수해제 물량 증가 전망으로 수급부담도 높아졌다. 그 외 광주시가 주택 선분양제를 금지하면서 부동산개발주에 악재로 작용했다.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비철금속채굴(-3.6%), 기계(-2.9%), 전자(-2.8%), 화학(-2.8%), 건설(-2.7%), 여행(-2.5%), 철강/비철금속/시멘트(-2.5%), 농업(-2.5%), 해운(-2.4%), 부동산(-2.0%), 소매유통(-1.9%), 음식료(-1.9%), 석탄(-1.1%) 등이 큰 폭으로 내렸다.

■ 홍콩 시장

H지수 3일 연속 하락.
전 업종 약세. 자동차, 건설,
시멘트, 기계업종 급락.
헬스케어, 전력주 낙폭 제한

H지수는 1.2% 하락해 사흘 연속 약세였다. QE3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3분기 이후 중국 발개위가 5조 위안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크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고 기업실적 악화 우려가 지속됐다. 중국과의 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중국 서안시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일본기업이 강제 퇴출됐다는 소식 등 중일간 갈등도 악화됐다. 그 외 롬니 미국 공화당 후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발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 업종이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자동차, 건설, 시멘트, 기계 등이 급락했다. 경기방어주인 전력과 헬스케어업종의 낙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9/26(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004.17	-1.24	-3.08	-2.12	-8.88
홍콩 H	9,628.40	-1.20	-2.24	3.75	-3.10
인도 SENSEX	18,631.08	-0.34	0.73	6.89	20.55
러시아 RTS	1,478.41	-2.15	-2.58	6.38	6.99
브라질 보베스파	60,501.10	-2.28	-2.11	6.03	6.60
베트남 VN	395.12	0.86	0.14	-0.23	12.39
MSCI 이머징마켓	1,001.85	-0.25	-0.75	5.76	9.33

주: 26일 오후 6시 5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QE3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부각되며 이를 연속 하락세

-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연방 준비은행 총재의 QE3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으로 경기둔화 우려감이 확산되며 미국증시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는 갭 하락으로 출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평배한 가운데 스페인발 유로존 위기가 재부각되며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로 장중 1970선까지 하락했으나, 4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간 연기금과 개인의 매수세로 낙폭을 축소하며 1980P로 마감. 코스닥도 기관의 매도 물량 출회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 보면 주가 하락에 따른 경기방어적 성격 및 원가 절감으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에 한국전력이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국민 모바일게임으로 등극한 '애니팡'의 열풍을 이어갈 모바일 팡류 게임 '캔디팡' 흥행 기대감에 개발사인 조이맥스가 신고가 기록. 또한, 지주회사 분할을 앞두고 한국콜마가 급등세를 보였으며, 모바일 결제 시장 확대 기대감에 KG모빌리언스 등이 강세를 보임. 중동지역에서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한 신종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백신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한편, 웅진그룹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1차 부도 처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웅진그룹주들이 동반 급락세를 보였으며, 삼성디스플레이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양산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아이컴포넌트가 하한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한국전력(015760) ▶27,900(+3.53%)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 발전 공급용량이 전년대비 증가함에 따라 계통한계가격(SMP)을 결정하는 최고 발전원가가 하락하며, 원가절감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정부의 세일 가스 도입으로 천연가스 관련 비용이 연간 1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연일 주가에 호재로 작용
조이맥스(101730) ▶29,000(+10.27%)	모바일 게임 '캔디팡' 흥행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게임 열풍이 한창인 가운데 동사의 자회사인 링크투모로우가 개발한 모바일 팡류 게임인 '캔디팡'의 성공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동사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로스트사가'가 인도네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향후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웅진홀딩스(016880) ▶3,600(하한가)	극동건설의 1차 부도 소식에 하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가 지분 92.7%를 보유하고 있는 극동건설이 만기가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는 소식에 웅진그룹주 동반 급락세 - 핵심 계열사 웅진코웨이 매각과 추가 계열사 매각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극동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여력은 부족하다는 평가
백신 관련주	신종바이러스 발견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지역에서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해 2명이 숨지고 한명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에 우려감이 확산되며 강세 - 고려제약(014570, +7.21%), 한독약품(002390, +4.33%), 대한뉴팜(054670, +4.21%), 케이피엠테크(042040, +2.75%), 영진약품(003520, +2.60%)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녹십자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녹십자 (006280)	159,500 (+2.9)	155,000 (9/25)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기반 하에 바이오 의약품,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성장 모색 - IVIG(면역결핍치료제) 및 그린딘-F(유전자 재조합 혈우병 치료제)의 미국 임상3상 진입, 태국 혈액제제 플랜트 수출, GC China(홀딩스 자회사)을 통한 직수출 확대 등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 지속
베이직하우스 (084870)	15,450 (+12.8)	13,700 (8/28)	- 2011년 이후 중국시장에서의 공격적인 매장 확대에 따른 성장통으로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매출 정성화와 함께 판관비 부담 완화 추세.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세 지속 전망 - 중국 의류시장의 잠재력, 발 빠른 시장 진출과 다수의 성장 브랜드 보유, 중국 내 백화점 및 쇼핑몰 침투율(10% 내외)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성장 여력은 충분. 여타 중국 소비 관련주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태광 (023160)	30,400 (+9.2)	27,850 (8/28)	- 2011년 이후 중국시장에서의 공격적인 매장 확대에 따른 성장통으로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매출 정성화와 함께 판관비 부담 완화 추세.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세 지속 전망 - 중국 의류시장의 잠재력, 발 빠른 시장 진출과 다수의 성장 브랜드 보유, 중국 내 백화점 및 쇼핑몰 침투율(10% 내외)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성장 여력은 충분. 여타 중국 소비 관련주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KG이니시스 (035600)	10,000 (+32.1)	7,570 (8/06)	- 해양플랜트용 피팅 발주 본격화로 5월 261억원, 6월 305억원, 7월 310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주 흐름 지속. 조선사들이 수주한 대규모의 해양플랜트 물량을 감안할 때 피팅 호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높은 수주잔고, 고부가가치제품 판매 확대, 설비증설 효과 등을 바탕으로 외형 및 수익성 개선세 지속 예상
수산중공업 (017550)	1,815 (-2.4)	1,860 (7/18)	- 국내 PG(온라인 지불결제)산업의 MS 1위 업체로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쇼핑 거래의 증가로 실적 성장세 지속 예상 -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소셜커머스 간편 결제, 대리운전 시장 진출 등의 신사업 및 사업 영역 확대 기대 - 높은 성장세와 1위 업체로서의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리레이팅 가능성 상존
LS (006260)	95,200 (+11.1)	85,700 (7/02)	- 유압브레이커 및 트럭크레인 등 주력제품의 판매량 증가 및 해외 수주 확대 지속으로 수익성 향상 예상 - 글로벌 판매처 다각화 및 우수한 딜러 확보, 유압브레이커 Capa 증설 및 소사장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전망 - 사업 안정성과 성장성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KCC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KCC (002380)	-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 입주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이익의 Down-side Risk 완화. 전략적 지분 매입을 통한 Captive market(올해 1월에는 에버랜드 주식 매입)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안정성 확보 - 전방산업의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이익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1. 12A	3,371	143	326	33,252	8.6
2012. 12F	3,434	225	696	70,906	3.9	

- 편입 제외 종목: SK텔레콤(차익실현으로 제외 +16.5%)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씨유메디칼 (115480)	16,550 (+12.6)	14,700 (9/20)	28	8	7	1,164	14.2
			- 독일, 일본 등 선진시장에 해외법인을 신설해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일반인용 심장충격기) 수출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로 향후 수출 본격화 예상 - AED 구비 의무화 대상 확대, 대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망 확대, 재활치료기 보급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 잠재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LG화학 (051910)	325,500 (-0.3)	326,000 (9/17)	24,006	2,177	1,627	22,136	14.7
			-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판,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3분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				
다음 (035720)	107,700 (+0.7)	107,000 (8/21)	467	106	91	6,788	15.9
			- 검색광고 매출은 부진하지만, 내년부터 대형 계약 변경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부터 제주도로 본사 이전에 따른 세제 혜택 예상 -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성과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 출시 및 로컬광고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 유효				
현대차 (005380)	247,000 (+2.9)	240,000 (6/12)	86,337	9,328	8,777	41,331	6.0
			- 해외 및 국내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 효과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세와 함께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개선세 지속 전망 - 브랜드 가치 제고와 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은 품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세를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일진디스플레이 (020760)	17,900 (+62.0)	11,050 (5/24)	521	59	56	1,801	9.9
			- 중대형 터치스크린패널 부문에서의 원가 경쟁력과 안정적인 수출 확보로 고객사내 점유율 확대 지속 - 모바일 기기 시장의 급성장세와 고객사의 태블릿 신모델 출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실적 개선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현대차, 다음, LG화학은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건자재: 겨울을 지난 건자재 업체

■ 주택 전방산업, 올 상반기 바닥을 확인하다

주택공급이 2010년을 저점으로 2년 연속 늘고 있다. 착공 후 1년 반 뒤 투입되는 건자재 매출이 하반기부터 최소 2년간 지속 증가할 것이다. 저금리와 규제 완화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될 가능성도 높다. 1) 건설사들은 분양시장에만 노출된 반면 건자재 업체는 기존 주택시장의 exposure가 높고, 2) 분양물과 무관하게 전방산업 개선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자재 업체의 턴어라운드는 건설사에 선행할 전망이다. 전방산업의 터닝 시점에서 건자재 업체에 대한 매수를 권유한다.

■ 건자재 업체의 자구적 노력- 환경 이슈의 대응과 value chain 통합

건설업 불황은 건자재 업체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했다. 첫째는 ‘에너지 효율등급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등 환경 규제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다. 창호시장이 3등급 위주에서 1,2등급 위주로 재편되며 고기능 창호에 선투자한 LG하우시스의 시장 선점이 예상된다. KCC는 친환경 도료 개발로 불황에도 타격이 크지 않았다. 둘째는 value chain 통합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다. LG하우시스는 창호와 유리를 통합한 완성창 체제로 변하고 있고 KCC는 유리와 창호, 접착제인 실란트를 모두 자체 생산함으로써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무장된 top tier들은 시장위기를 시장 지배력 제고의 기회로 역이용하고 있다.

■ B2C 시장을 선점하는 LG하우시스 선호, KCC도 bottom fishing이 가능한 가격

건자재 산업은 1) 분양시장의 저성장, 2) 주택 정비사업 둔화로 B2C의 성장성이 B2B보다 높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LG하우시스를 KCC보다 선호한다. LG하우시스는 1) 2014년까지 주택 입주량 증가와 2) 주택거래량 회복에 따른 B2C 시장 개선의 수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현재 35%인 완성창 비중도 내년 40%까지 높아져 창호 영업이익률은 올해 BEP에서 내년 2.0%로 상승할 것이다. KCC의 매력은 captive 기반의 불황에 강한 이익 안정성과 PBR 0.5배의 절대적 저평가다. 전방산업의 바닥 확인으로 내년 영업이익은 26.8%YoY 증가할 전망이다. LG하우시스의 목표주가를 106,000원으로 상향하며 KCC의 목표주가를 348,000원으로 제시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9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미디어 · 광고: 미디어 주가 상승 지속, 그러나 valuation 부담 생기는 중

■ 미디어 업종의 시장 대비 초과 상승 지속, 그러나 valuation 부담이 발생하는 중

미디어 · 광고 업종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Kospi를 22.6%p 초과 상승하고 있고 최근 1개월간 수익률은 9.8%p 초과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가 상승으로 valuation 부담이 생겨 상승여력이 최고 PER valuation 대비 25% 수준 낮아졌다. 현재 12개월 forward PER은 16배(그림 1, 2)인데 11년말 미디어 업종의 주가 랠리 기간의 최고 valuation은 20배까지 받은 경험이 있다.

Valuation 부담이 높아져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미디어 · 광고 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광고경기가 개선되고 콘텐츠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1) 광고경기는 9월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광고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광고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광고주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 2) 디지털 전환 확산, 플랫폼 다양화 등에 따라 콘텐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TE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스마트 디바이스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대용량 고화질의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음원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다.

■ 광고경기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광고정보센터에서 공개하는 4대매체 광고비 데이터를 보면 12년 8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1.3% 증가했다. TV 광고비는 전년동월 대비 14.1% 증가했다. 지상파 3사의 런던 올림픽을 통한 광고수익이 기대 이상 발생했기 때문이다(480 억원으로 예상). 다만 라디오, 신문, 잡지의 광고수익은 각각 4.0%, 7.7%, 9.7% 감소했다(그림 4).

9월부터는 국내 광고 경기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지상파의 광고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간접광고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SBS의 민영 미디어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으면서 민영 미디어랩 도입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KOBACO에서 광고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9월, 10월 광고 경기예측지수는 각각 113, 115으로 전망돼 광고주들의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

■ 에스엠, 제일기획 선호

우리는 에스엠, 제일기획을 top picks로 제시한다. 1) 에스엠은 동방신기의 새로운 앨범 발매, 소녀시대의 국내, 미국, 일본 앨범 발매, 신인 EXO의 신규 앨범이 9월 말부터 발매되기 시작하는데 이에 따른 모멘텀이 존재하고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방신기는 국내 콘서트 및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어 꾸준한 활동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 13년부터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반영되면 일본 법인 및 SM C&C의 실적이 반영돼 13년 PER은 11 배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3분기 영업이익은 220억원으로 예상된다. 2) 제일기획은 미국, 중국에서 광고대행사를 인수한 후 해외에서의 성장성을 확보하고 삼성전자의 핵심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이 확대되고 있다. 3분기 영업이익은 399억원으로 추정된다.

3) CJ E&M은 3분기 방송 광고수익이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제작비가 통제 수준에 따라 영업이익이 결정될 것이다. 3분기 영업이익은 129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보다 부진할 전망이다. 음악 부문이 부진하지만 신규 게임 출시, 영화 흥행 및 부가관련 매출 증가로 하반기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4) SBS콘텐츠허브는 7월 완료된 SBS 콘텐츠 사용 효율 정산이 3분기에 일부 반영돼 3분기 영업이익은 우리 예상치인 126억원보다 10억~20억원 정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5) 와이지는 3분기 영업이익이 106억원으로 추정된다. 3분기에 빅뱅의 일본 콘서트, 싸이 및 2NE1의 국내 콘서트 등이 반영된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단기적으로 iTunes, 유튜브를 통한 매출액 및 광고모델수익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9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제일기획(030000)

매수(유지)
목표가: 26,500원(유지)
종가 (9/25): 22,750원

3Q12 Preview: 견조한 실적과 함께 짝수 해에도 주가 상승 중

■ 짝수해 징크스 해소 중, '매수'의견 유지

제일기획의 주가는 연초 대비 24% 상승했다. 짝수 해 주가 상승폭이 홀수 해보다 작거나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지만 10년부터 없어지고 있다. 국내 광고 규제완화 등으로 협상력이 강화되고 있고 해외 M&A 및 인력 보강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기획의 투자 매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1) M&A, 핵심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해외 삼성 그룹 광고 및 비계열 광고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2년, 13년 해외 매출총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7.2%, 22.3% 증가할 전망이다. 2)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으로 인한 광고 판매 효율성 개선과 매체 다양화에 따른 광고시장 확대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가격 결정권 강화로 본사 취급고 점유율은 11년 18%에서 13년에는 21%로 상승할 전망이다. 제일기획에 대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26,500원을 유지한다.

■ 3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전망

제일기획의 3분기 실적은 2분기에 이어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 광고시장 부진과 지속적으로 국내외 핵심인력 확충으로 인건비 부담이 있지만, 미국, 중국 내 로컬 광고회사 인수에 따른 실적이 반영되고 삼성전자의 국내외 핵심 제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강화되며 올림픽에 따른 광고비가 실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3분기 영업이익은 39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7% 늘어나 시장 컨센서스인 383억원을 소폭 상회할 전망이다.

■ 국내 광고경기 좋지 않아도 제일기획은 견조한 상황

국내 광고경기가 3~7월 부진했지만 제일기획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2분기 국내 매출총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0.2% 늘어 선방했고 7~8월에 삼성전자의 국내 4대매체 광고비가 전년동월 대비 각각 81%, 31% 늘었기 때문이다(광고정보센터). 8월 4대매체 광고비는 올림픽에 따른 광고 증가로 1.3% 증가했다. KOBACO에서 광고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9월, 10월 광고경기예측지수는 각각 113, 115으로 전망돼 광고주들의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광고경기는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사주 매입 공시, 주가에 긍정적

제일기획은 25일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지 제고를 위해 자사주 345만주를 매입한다는 공시를 했다. 이번 자사주 보유 비율은 기존 5.9%에서 8.9%까지 늘어난다. 자사주 취득에 따른 주당 주주이익환원 금액은 719원이고 자사주 매입에 따라 13년 EPS는 3.3% 늘어난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가부양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450	139	153	108	985	2,822.7	149	14.1	6.7	2.3	17.5
2011A	1,758	109	127	93	853	(13.4)	121	22.2	12.5	3.0	13.7
2012F	2,254	137	161	117	1,074	25.9	157	21.2	12.1	3.1	16.2
2013F	2,650	197	222	161	1,538	43.2	219	14.8	8.2	2.7	20.0
2014F	2,948	241	272	197	1,882	22.4	265	12.1	6.1	2.2	20.2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2년 9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9/19(수)	09/20(목)	09/21(금)	09/24(월)	09/25(화)	09/26(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07.88	1,990.33	2,002.37	2,003.44	1,991.41	1,980.44	
	등락폭	2.92	-17.55	12.04	1.07	-12.03	-10.97	
	등락종목	상승(상한)	493(5)	367(11)	463(5)	366(3)	259(8)	278(5)
		하락(하한)	322(4)	463(4)	356(7)	460(8)	571(8)	550(1)
	ADR	113.56	110.49	115.67	113.62	109.55	104.24	
	이격도	10 일	102.55	101.09	101.33	100.98	100.02	99.31
		20 일	103.74	102.71	103.11	102.94	102.12	101.42
	투자심리	70	60	60	70	70	60	
	거래량 (백만 주)	946	613	642	477	524	1,190	
거래대금 (십억 원)	5,703	5,276	4,904	4,189	4,453	4,730		
코스닥	코스닥지수	528.06	528.06	531.49	532.28	522.96	520.71	
	등락폭	4.54	0.00	3.43	0.79	-9.32	-2.25	
	등락종목	상승(상한)	535(12)	418(10)	479(17)	453(26)	267(9)	359(17)
		하락(하한)	384(7)	519(4)	465(11)	498(18)	689(13)	583(4)
	ADR	109.92	107.55	110.03	113.04	105.82	100.02	
	이격도	10 일	102.10	101.68	101.94	101.70	99.75	99.26
		20 일	103.47	103.18	103.51	103.28	101.24	100.65
	투자심리	80	70	70	70	60	50	
	거래량 (백만 주)	785	784	912	707	920	592	
거래대금 (십억 원)	2,929	2,965	3,368	3,015	3,166	2,31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652.2	983.0	1,094.0	163.5	144.2	277.9	71.9	28.9	312.8	47.2
	매도	2,512.4	952.5	1,265.1	213.3	181.5	361.6	57.1	48.7	197.5	46.5
	순매수	139.9	30.5	-171.1	-49.8	-37.3	-83.7	14.8	-19.8	115.4	0.7
	09월 누계	-2,245.0	3,128.8	-665.3	-380.2	-110.7	-1,186.7	-73.5	-3.7	823.2	-218.5
	12년 누계	-12,491.3	14,768.8	1,658.0	1,258.8	2,203.1	-4,344.2	-74.5	412.0	1,407.4	-3,935.5
코스닥	매수	2,136.3	77.7	107.5	14.4	18.6	34.2	5.7	4.0	27.7	16.7
	매도	2,117.1	81.9	111.7	19.1	16.9	37.5	8.2	5.2	19.3	27.4
	순매수	19.2	-4.2	-4.2	-4.7	1.7	-3.3	-2.5	-1.2	8.4	-10.8
	09월 누계	21.4	83.9	-69.1	18.9	25.7	-125.2	-38.0	-11.0	59.8	-36.1
	12년 누계	979.1	-1.3	-400.0	65.3	82.1	-578.6	-88.9	-53.8	162.7	-577.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15,661	금융업	-34,273
운수장비	6,134	서비스업	-17,230
통신업	2,608	건설업	-15,541
현대차	17,125	하나금융지주	-15,836
한국전력	17,036	현대건설	-10,128
삼성전자	10,561	삼성물산	-10,015
삼성전기	6,188	LG	-7,138
NHN	5,071	엔씨소프트	-6,855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25,789	건설업	-3,071
전기,전자	22,506	은행	-1,641
전기가스업	12,224	통신업	-743
현대차	20,502	삼성물산	-5,412
한국전력	15,033	만도	-4,222
삼성전자	14,087	한국가스공사	-3,266
현대모비스	8,402	S-Oil	-2,855
OCI	5,404	GS건설	-2,62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의약품	256	운수장비	-5,300
철강및금속	255	유통업	-4,732
서비스업	157	화학	-2,896
KODEX 레버리지	1,936	현대차	-2,872
LG디스플레이	1,482	삼성전자	-2,647
NHN	727	대우인터내셔널	-2,114
엔씨소프트	658	SIMPAC	-1,399
하나금융지주	595	LG화학	-1,147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11,956	화학	-12,743
보험	10,451	건설업	-10,259
통신업	2,717	전기,전자	-10,135
한국전력	12,899	KODEX 200	-19,833
현대차	11,679	기아차	-10,560
삼성화재	9,896	삼성전자	-9,739
LG유플러스	3,432	삼성중공업	-5,853
현대백화점	3,100	GS건설	-5,504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29,262	전기,전자	-52,546
보험	8,901	금융업	-46,138
제조업	1,852	건설업	-31,090
현대차	45,445	기아차	-30,430
한국전력	35,152	KODEX 레버리지	-24,540
KODEX 인버스	11,940	삼성물산	-22,196
삼성화재	8,834	삼성전자	-19,488
현대모비스	8,514	하나금융지주	-15,865
NHN	7,178	삼성엔지니어링	-15,148
삼성전기	6,289	LG디스플레이	-14,595
현대백화점	5,825	삼성중공업	-13,107
LG유플러스	5,768	신한지주	-12,846
강원랜드	5,627	SK하이닉스	-12,165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36,250	화학	-25,674
금융업	20,247	음식료품	-10,000
운수장비	7,519	전기가스업	-7,604
삼성전자	25,966	NHN	-15,087
현대차	18,716	금호석유	-9,856
신한지주	13,614	현대모비스	-8,646
LG디스플레이	11,363	기아차	-8,643
삼성엔지니어링	8,087	엔씨소프트	-8,637
KB금융	7,169	한국전력	-8,402
삼성물산	6,578	OCI	-6,668
SK이노베이션	6,128	KT&G	-6,583
대우조선해양	5,569	삼성화재	-6,395
롯데쇼핑	5,153	LG생활건강	-5,54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1,771	제약 -2,838
의료,정밀기기	784	반도체 -1,350
기계,장비	726	디지털컨텐츠 -904
파라다이스	1,795	메디톡스 -2,525
세코닉스	889	에스텍파마 -1,163
로엔	755	하나투어 -701
실리콘웍스	643	인터파크 -612
코오롱생명과학	540	KH바텍 -548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1,924	방송서비스 -1,327
제약	1,760	금속 -729
사업지원	1,707	의료,정밀기기 -541
하나투어	1,401	CJ오쇼핑 -1,293
파라다이스	1,362	태광 -1,095
다음	1,144	에스에프에이 -867
메디톡스	1,098	나노신소재 -475
에스엠	1,022	진성티이씨 -42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364	금속 -902
오락,문화	351	디지털컨텐츠 -801
의료,정밀기기	350	인터넷 -443
뷰웍스	408	태광 -903
파라다이스	351	게임빌 -859
에스에프에이	221	서울반도체 -587
심텍	206	다음 -443
서부T&D	206	로엔 -284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1,818	반도체 -1,610
제약	1,290	화학 -1,220
기계,장비	673	사업지원 -1,156
게임빌	1,661	덕산하이메탈 -1,669
씨젠	1,622	JCE -1,240
인터플렉스	1,266	하나투어 -861
태광	666	SBS콘텐츠허브 -800
디지털시스템	627	에이블씨엔씨 -763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4,128	반도체 -3,639
IT부품	2,868	디지털컨텐츠 -3,091
기계,장비	2,201	금속 -2,827
파라다이스	3,739	에스엠 -3,129
씨젠	2,914	CJ오쇼핑 -2,432
인터플렉스	1,975	덕산하이메탈 -1,789
에스에프에이	1,486	인터파크 -1,633
서부T&D	1,429	메디톡스 -1,495
디지털시스템	1,304	태광 -1,474
세코닉스	1,050	서울반도체 -1,221
실리콘웍스	902	CJ E&M -1,142
성우하이텍	770	에스텍파마 -1,104
에스맥	713	JCE -1,065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금속	2,482	오락,문화 -4,622
방송서비스	2,321	기계,장비 -3,944
디지털컨텐츠	2,244	소프트웨어 -2,713
CJ오쇼핑	2,522	파라다이스 -5,450
메디톡스	2,202	에스에프에이 -3,004
다음	1,593	셀트리온 -1,964
하이록코리아	1,032	덕산하이메탈 -1,531
SBS콘텐츠허브	1,021	비트컴퓨터 -1,488
SK브로드밴드	939	메가스터디 -1,121
컴투스	846	성우하이텍 -737
서울반도체	764	에스코넥 -685
루멘스	726	솔고바이오 -667
제이콘텐츠리	602	멜파스 -65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롯데삼강	26 일	한국철강	19 일
빙그레	18 일	SK네트웍스	15 일
남해화학	15 일	현대건설	14 일
대웅제약	14 일	삼성전자	14 일
한진중공업홀딩스	13 일	신한지주	13 일
한진해운홀딩스	12 일	대한생명	13 일
부광약품	11 일	롯데쇼핑	12 일
현대증권	11 일	KPX화인케미칼	11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71 일	SBS콘텐츠허브	20 일
이엘케이	15 일	이엘케이	18 일
오스템임플란트	8 일	동국산업	14 일
에스에프에이	8 일	이트레이드증권	14 일
포스코엠텍	6 일	하이록코리아	10 일
하나투어	6 일	성광벤드	6 일
성우하이텍	4 일	인터플렉스	6 일
OCI머티리얼즈	4 일	케이디씨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차	92,232	삼성전자	142,238
한국전력	85,148	CJ제일제당	36,797
CJ제일제당	64,075	SK하이닉스	35,474
오리온	43,407	신한지주	32,846
NHN	35,281	LG디스플레이	32,281
삼성화재	27,677	KT	31,286
KODEX 인버스	24,990	KB금융	29,011
SK하이닉스	22,093	SK이노베이션	25,974

KOSDAQ			
기	관	외	국 인
씨젠	14,714	CJ E&M	8,503
멜파스	11,682	안랩	7,982
하나투어	7,395	에이블씨엔씨	7,500
코오롱생명과학	7,162	CJ오쇼핑	6,717
성광벤드	7,077	인터플렉스	6,252
세코닉스	5,215	성광벤드	5,745
에스맥	4,922	네오위즈게임즈	5,412
진성티이씨	4,500	솔브레인	4,555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섬유,의복		1,262	1,143
운수창고		898	1,224
-		-	-
현대차		45,445	18,716
삼성전기		6,289	3,534
강원랜드		5,627	1,378
한국콜마		2,285	2,803
현대글로벌비스		2,184	2,150
녹십자		935	3,367
스카이라이프		2,879	1,120
웅진코웨이		2,117	1,012
대우증권		1,261	1,449
현대하이스코		2,117	561

KOSDAQ			
종	목	기	관
IT부품		2,868	763
통신서비스		753	782
사업지원		345	733
인터플렉스		1,975	99
SK브로드밴드		661	939
세코닉스		1,050	543
디지텍시스템		1,304	184
제이콘텐트리		380	602
하나투어		284	488
씨티씨바이오		137	566
바이로메드		474	213
와이솔		637	29
블루콤		572	8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동부하이텍	24 일	아세아시멘트	19 일
고려제강	19 일	CJ	17 일
한일시멘트	16 일	세아제강	12 일
KOSEF 국고채	14 일	대덕GDS	10 일
KStar 5대그룹주	13 일	TREX 200	9 일
SK네트웍스	10 일	오리온	8 일
국도화학	10 일	농심	8 일
삼성엔지니어링	10 일	빙그레	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원익IPS	9 일	메가스터디	44 일
시그네틱스	8 일	파라다이스	8 일
SDN	5 일	유진기업	7 일
CJ오쇼핑	4 일	이오테크닉스	6 일
루멘스	4 일	포스코엠텍	5 일
태웅	4 일	한국토지신탁	5 일
SBS콘텐츠허브	4 일	씨엔케이인터	5 일
신화인터텍	4 일	비에이치아이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기아차	-107,954	오리온	-40,541
LG전자	-63,433	엔씨소프트	-34,571
SK이노베이션	-62,594	LG전자	-24,959
삼성물산	-62,181	NHN	-22,805
하나금융지주	-57,637	삼성화재	-22,125
KODEX 레버리지	-44,165	GKL	-17,006
삼성엔지니어링	-43,009	고려아연	-15,982
삼성전자	-42,025	CJ	-13,547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 E&M	-13,150	에스엠	-18,112
에이블씨엔씨	-8,384	파라다이스	-9,909
CJ오쇼핑	-6,299	셀트리온	-7,692
네패스	-5,191	메가스터디	-4,548
서울반도체	-5,079	에스에프에이	-4,428
덕산하이메탈	-3,931	하나투어	-3,023
씨티씨바이오	-3,752	위메이드	-2,713
JCE	-2,937	씨젠	-2,552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15,853	-25,674	-41,526	
건설업	-31,090	-1,140	-32,230	
비금속광물	-481	-1,216	-1,697	
기아차	-30,430	-8,643	-39,074	
KODEX 레버리지	-24,540	-2,543	-27,083	
하나금융지주	-15,865	-3,824	-19,689	
엔씨소프트	-9,015	-8,637	-17,652	
대림산업	-7,280	-5,271	-12,551	
호남석유	-4,188	-3,947	-8,134	
고려아연	-4,348	-2,452	-6,800	
만도	-5,378	-1,376	-6,755	
LG전자	-4,783	-1,948	-6,730	
두산인프라코어	-5,821	-73	-5,895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3,639	-383	-4,022	
소프트웨어	-1,109	-2,713	-3,821	
화학	-1,305	-165	-1,471	
덕산하이메탈	-1,789	-1,531	-3,320	
인터파크	-1,633	-218	-1,850	
태광	-1,474	-82	-1,556	
멜파스	-332	-658	-990	
휴비츠	-363	-478	-841	
코텍	-435	-51	-486	
골프존	-230	-203	-433	
하이비전시스템	-320	-102	-422	
바이오랜드	-293	-118	-411	
조이맥스	-347	-46	-39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LG전자	591	41,948	
삼성전자	20	26,534	
SK하이닉스	279	6,415	
KODEX 200	206	5,414	
POSCO	14	5,120	
LG디스플레이	163	4,603	
현대글로벌비스	19	4,412	
LG화학	12	3,96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87	2,493	
네오위즈게임즈	48	1,336	
게임빌	9	1,000	
아세아텍	201	648	
태광	19	554	
오스템임플란트	18	481	
메디투스	5	384	
컴투스	5	363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135	5,486,521	
POSCO	9,307	3,490,082	
LG전자	41,936	2,927,107	
OCI	9,091	1,704,494	
현대차	5,466	1,336,545	
NHN	3,356	923,019	
현대모비스	2,576	825,506	
기아차	10,021	726,49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4,039	698,322	
서울반도체	6,300	139,865	
에스엠	1,615	90,589	
덕산하이메탈	2,760	56,860	
네오위즈게임즈	1,878	54,367	
인터플렉스	564	39,216	
위메이드	693	36,788	
게임빌	340	36,541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금융업	5,580	기계	-1,644
화학	5,235	철강및금속	-785
전기,전자	4,770	통신업	-447
기업은행	3,232	두산인프라코어	-2,210
대우조선해양	2,276	아시아나항공	-1,333
우리금융	1,894	CJ CGV	-562
한화	1,480	동양철관	-524
KB금융	1,412	웅진케미칼	-497
한화케미칼	1,361	KT	-359
하나금융지주	1,206	한전기술	-337
STX팬오션	1,133	GS	-244
효성	1,086	녹십자홀딩스	-225
현대그린푸드	1,083	현대증권	-21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제약	2,227	화학	-852
반도체	534	컴퓨터서비스	-369
소프트웨어	423	미분류	-279
셀트리온	1,955	SSCP	-750
루멘스	708	포스코 ICT	-426
에스엠	303	성용광전투자	-281
대아티아이	265	에스코넥	-241
원익PS	208	성우하이텍	-240
예당	200	차바이오앤	-232
서희건설	174	서울반도체	-171
이지바이오	145	성광밴드	-128
파트론	133	신화인터텍	-126
코리아본뱅크	123	OCI머티리얼즈	-106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9/20(목)	09/21(금)	09/24(월)	09/25(화)	09/26(수)
외국인	14,768.8	3,128.8	355.2	167.8	167.6	1.2	-12.3	30.5
기관계	1,658.0	-665.3	-314.2	-210.3	-20.2	3.9	83.9	-171.1
(투신)	-4,344.2	-1,186.7	-548.5	-163.9	-82.3	-85.5	-133.2	-83.7
(연기금)	1,492.2	842.8	403.6	-55.2	26.0	159.5	158.9	116.0
(은행)	412.0	-3.7	-15.4	9.5	-4.7	-1.3	0.8	-19.8
(보험)	2,203.1	-110.7	-64.5	-26.4	27.2	-15.5	-13.8	-37.3
개인	-12,491.3	-2,245.0	58.1	55.7	-143.1	-2.5	7.8	139.9
기타	-3,935.5	-218.5	-99.1	-13.2	-4.2	-2.6	-79.4	0.7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9/19(수)	09/20(목)	09/21(금)	09/24(월)	09/25(화)
KOSPI	1,682.77	2,051.00	1,825.74	2,007.88	1,990.33	2,002.37	2,003.44	1,991.41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8937.8	18956.4	18949.7	18905.5	19105.6
(증감액)	2735.7	1996.5	3611.7	-40.7	18.6	-6.7	-44.2	200.1
(회전율)	52.6	51.5	34.2	46.4	44.2	44.2	38.8	41.0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101.4	-69.5	-113.7	-74.5	-14.1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088.4	4121.2	4196.3	4200.8	4232.8
미수금	240.2	192.3	187.7	139.6	141.7	132.4	153.3	144.7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9/19(수)	09/20(목)	09/21(금)	09/24(월)	09/25(화)
전체 주식형	96,512	-6,455	-2,517	-194	-130	-69	-114	-82
(ex. ETF)		-8,471	-2,067	-144	-160	-85	-188	-91
국내 주식형	68,795	-3,895	-2,236	-168	-129	-31	-60	-59
(ex. ETF)		-5,908	-1,790	-119	-159	-46	-137	-68
해외 주식형	27,717	-2,560	-280	-25	-1	-38	-55	-23
(ex. ETF)		-2,563	-277	-25	-1	-38	-52	-23
주식 혼합형	10,692	-1,299	-90	-17	-14	-6	-13	47
채권 혼합형	18,518	408	268	-19	32	24	-149	22
	44,495	-47	-602	127	-59	83	-107	168
채권형	71,726	17,281	-1,925	-351	-1,428	-251	-1,411	-118
MMF	96,512	-6,455	-2,517	-194	-130	-69	-114	-8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9/20(목)	09/21(금)	09/24(월)	09/25(화)	09/26(수)
한 국	13,230	5,509	317	150	150	1	-11	27
대 만	2,527	1,717	637	75	289	131	142	-
인 도	14,755	2,183	768	-0	459	310	-	-
인도네시아	1,647	271	-27	-19	-16	25	-17	-
태국	2,210	96	41	40	-17	-9	26	-
남아공	-571	-851	-92	-24	-21	-	-46	-
필리핀	2,201	366	18	3	1	7	8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09/19(수)	09/20(목)	09/21(금)	09/24(월)	09/25(화)	09/26(수)
회사채 (AA-)	4.21	3.38	3.32	3.34	3.32	3.31	3.30
회사채 (BBB-)	10.01	8.76	8.70	8.72	8.70	8.69	8.68
국고채 (3년)	3.34	2.88	2.82	2.84	2.84	2.80	2.79
국고채 (5년)	3.46	2.97	2.90	2.92	2.90	2.88	2.87
국고채 (10년)	3.79	3.12	3.05	3.07	3.07	3.04	3.03
미 국채 (10년)	1.88	1.77	1.76	1.75	1.71	1.67	-
일 국채 (10년)	0.99	0.82	0.80	0.80	0.79	0.80	-
원/달러	1,151.80	1,114.80	1,123.10	1,119.20	1,120.50	1,119.30	1,121.10
원/엔	1,492.00	1,423.00	1,434.72	1,432.00	1,439.00	1,438.00	1,443.00
엔/달러	77.24	78.34	78.28	78.18	77.90	77.87	77.73
달러/유로	1.29	1.30	1.29	1.30	1.29	1.29	1.28
DDR3 1Gb (1333MHz)	0.64	0.64	0.64	0.64	0.64	0.64	-
NAND Flash 16Gb (MLC)	2.81	1.76	1.76	1.76	1.80	1.81	-
CRB 지수	305.30	308.41	306.93	308.98	305.93	306.71	-
LME 지수	3,306.0	3,579.4	3,546.3	3,559.9	3,515.7	3,567.0	-
BDI	1,738	722	755	774	772	763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91.98	91.87	92.61	91.63	90.99	-
금 (달러/온스)	1,566.80	1,769.30	1,767.80	1,775.60	1,762.20	1,763.9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212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9월 20일	261.87	264.35	1.89	2.48	2.44	224,407	96,686	-482
9월 21일	263.41	265.05	1.87	1.64	2.63	177,567	99,874	3,188
9월 24일	263.56	265.40	1.80	1.84	1.97	256,550	102,134	2,260
9월 25일	262.03	264.55	1.76	2.52	2.08	179,152	101,718	-416
9월 26일	260.42	262.35	1.75	1.93	1.79	164,558	101,802	84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9월 20일	1,006	417	-1,436	-751	-751	-97	207	0
9월 21일	-256	-142	552	10	652	36	-186	-1
9월 24일	2,516	-1,397	-1,597	-1,750	-384	-68	132	0
9월 25일	-1,439	685	965	1,312	227	-61	-63	1
9월 26일	-1,024	9	1,448	241	70	168	75	0
누적포지션	-1,556	2,325	-443	-315	-1,310	9	1,981	-858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9월 20일	700	791	91	622	696	74	77	95	17	6,419	10,251
9월 21일	787	1,058	271	739	891	152	48	167	120	6,370	10,323
9월 24일	663	523	-140	521	423	-99	141	100	-41	6,395	10,306
9월 25일	602	564	-37	516	444	-72	85	120	35	6,396	10,341
9월 26일	741	546	-194	585	499	-86	156	47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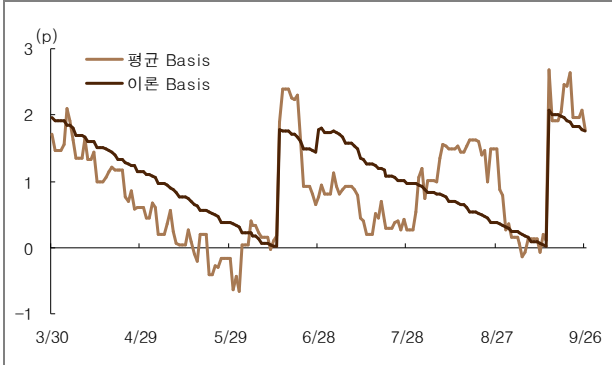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 / 가격(P))

변동성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16.30	2,617	136,217	0.20	275.00	14.25	199	-40	10.82
16.16	-682	92,792	0.36	272.50	12.00	136	-46	14.95
16.09	1,471	150,982	0.63	270.00	9.45	376	-76	11.85
16.13	-8	133,456	1.07	267.50	7.40	1,232	-249	13.32
16.39	2,239	117,161	1.76	265.00	5.60	5,276	-355	14.18
16.88	1,592	63,509	2.76	262.50	4.10	11,984	-682	14.89
17.67	216	12,306	4.10	260.00	2.91	33,353	-1,022	15.55
18.72	461	7,257	5.75	257.50	2.01	112,582	-943	16.18
19.44	165	1,456	7.55	255.00	1.38	116,738	61	16.96
19.99	20	217	9.50	252.50	0.94	101,765	-838	17.77
20.54	5	94	11.60	250.00	0.66	112,138	1,219	1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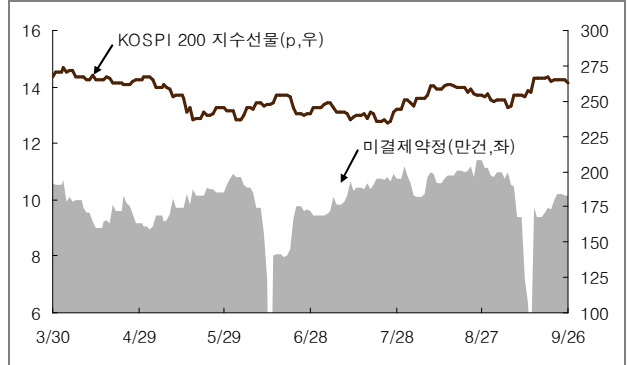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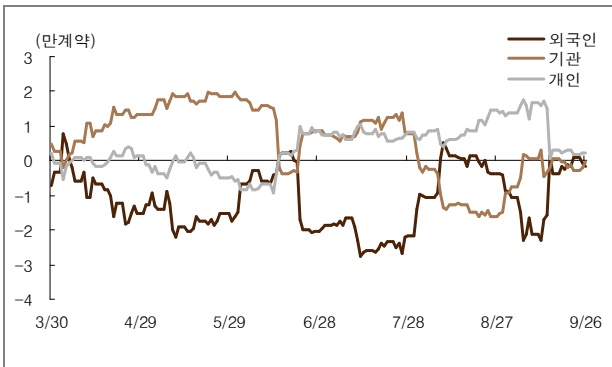
- 평균 Basis: 1.79 (전 거래일 대비 0.29 하락)
- 이론 Basis: 1.75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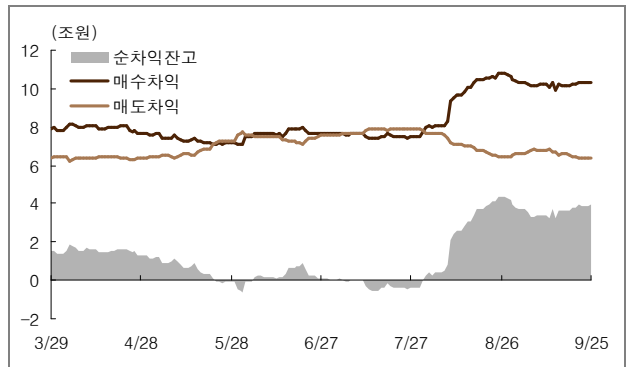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84 계약 증가한 101,802 계약
- 선물가격(262.35): 전 거래일 대비 2.20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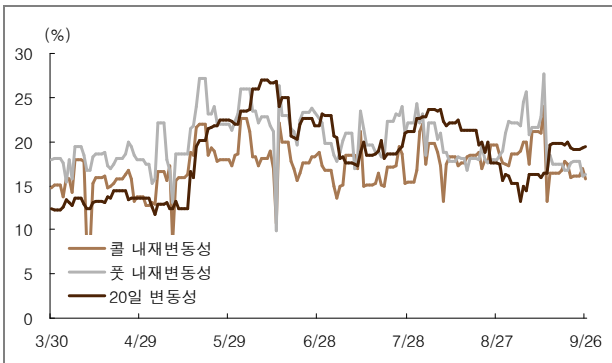
- 외국인: 1,024 계약 순매도
- 기관: 1,448 계약 순매수 / 개인: 9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1,086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856 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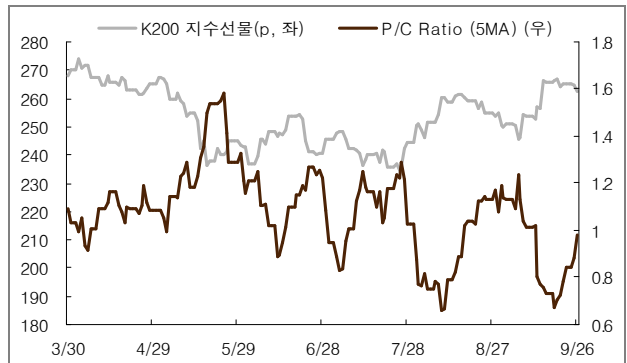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5.7% / 풋 16.2%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9.41%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98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7	18	19	20	21
韓> 8월 백화점 매출 YoY (-6.9%, n/a, -1.3%) 8월 할인점 매출 YoY (-3.3%, n/a, -8.2%) 美> 9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10.41, -2.00, -5.85) 유럽> 7월 유로권 경상수지 SA (9.7B, n/a, 12.7B) 7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7.9B, n/a, 10.5B)	美>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40, 38, 37) 2분기 경상수지 (-\$117.4B, -\$125.0B, -\$137.3B)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0.2%, n/a, 11.1%) 8월 주택착공 MoM (2.3%, 2.8%, -1.1%) 8월 건축허가 MoM (-1.0%, -1.9%, 6.8%) 8월 기존주택매매 MoM (7.8%, 2.0%, 2.3%) 日> BoJ 정책금리 (0.10%, 0.10%, 0.10%) 中> 8월 실질 FDI YoY (-1.4%, -5.8%, -8.7%)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8.2만, 37.5만, 38.2만) 9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1.9, -4.5, -7.1) 8월 경기선행지수 MoM (-0.1%, -0.1%, 0.4%) 유럽> 9월 유로권 소비자대지수 (-25.9, -24.0, -24.6) 9월 유로권 PMI 제조업 (46.0, 45.5, 45.1) 9월 유로권 PMI 서비스 (46.0, 47.5, 47.2) 中> 9월 HSBC플래시 PMI 제조업 (47.8, n/a, 47.6) 日> 8월 수출 YoY (-5.8%, -7.5%, -8.1%) 8월 수입 YoY (-5.4%, -5.5%, 2.1%)	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정상 회담 독일, 프랑스 장관 회담
24	25	26	27	28
美> 9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 (-0.9, -1.4, -1.6)	韓> 9월 소비자대지수 (99, n/a, 99) 美> 7월 S&P/CS주택가격지수 MoM (0.44%, 0.80%, 0.94%) 9월 소비자대지수 (70.3, 63.1, 60.6) 7월 주택가격지수 MoM (0.2%, 0.6%, 0.7%) 유럽> 메르켈, 드라기 회동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0.2%) 8월 신규주택매매 MoM (n/a, 2.2%, 3.6%)	韓> 10월 BSI 제조업 (n/a, n/a, 75) 10월 BSI 비제조업 (n/a, n/a, 69)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7.5만, 38.2만) 2분기 연간화 GDP QoQ (n/a, 1.7%, 1.7%) 8월 미결주택매매 MoM (n/a, 0.0%, 2.4%)	韓> 8월 경상수지 (n/a, n/a, \$6,103.8M) 8월 상품수지 (n/a, n/a, \$5,316M) 8월 산업생산 YoY (n/a, 0.7%, 0.3%) 8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MoM (n/a, n/a, 0.2) 美> 8월 개인소득 MoM (n/a, 0.2%, 0.3%) 8월 개인소비지수 MoM (n/a, 0.5%, 0.4%) 中> 8월 선행지수 (미확정) (n/a, n/a, 98.75) 日> 8월 실업률 (n/a, 4.3%, 4.3%) 8월 국내 CPI YoY (n/a, -0.5%, -0.4%) 8월 산업생산 YoY (n/a, -3.4%, -0.8%)
1	2	3	4	5
韓> 9월 수출 YoY 9월 수입 YoY 9월 무역수지 美> 9월 ISM 제조업 지수 8월 건설지출 MoM 유럽> 8월 유로존 실업률 中> 9월 PMI 제조업	韓>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9월 HSBC PMI 제조업 9월 외환보유액 (미확정) 美> 9월 ISM 뉴욕 지수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9월 ADP 취업자 변동 9월 ISM 비제조업 지수 유럽> 8월 유로존 소매판매 YoY 中> 9월 PMI 비제조업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FOMC 회의록 공개 유럽> ECB 금리 공시 BoE 금리 공시	美> 9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9월 실업률 8월 소비자신용지수 日> BoJ 정책금리 결정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